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Women-friendly Kimpo New Town Planning  
with Gender Equity Assessment

**이상문**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제1연구자)  
**Lee Sangmo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Hyupsung Univ.(Primary Author)  
(moon@uhs.ac.kr)  
**전영옥** (사)도시환경연구센터 연구실장  
**Jeon Youngok** Director, Urban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jeonyo@dreamwiz.com)

## 목 차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개념 및 연구방법
3. 국내외 동향

### II. 성별영향평가지표 및 계획요소의 선정

1. 지표 및 계획요소 선정과정
2. 국외사례 분석
3. 여성친화 측면에서 기존 신도시 조사분석
4. 기존 신도시 주민설문조사분석
5. 성별영향평가지표 및 계획요소의 선정결과

### III.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계획입안 및 결정과정에서의 성별영향평가
2.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신도시계획에의 환류

### IV. 결론

※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2006년 심층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었음.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산업도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외형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시서비스 접근에 대한 계층 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제력이 약한 노인·아동·여성의 경우, 여가·주거·보육·문화 등 각종 편의서비스 접근에 더 큰 제약이 존재한다.

도시의 조성과 운영에서 성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불균형 문제를 자각한 전문가나 시민들이 자발적 연대체계를 형성하여, 도시조영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주창자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여성의 취업, 정치진출 등 사회적 거대담론을 형성하는 여성일터의 위치, 탁아소 형태, 신체적 고려, 귀가안전 등과 같은 일상적 문제를 다루었다.

신도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도시의 성별영향평가지표와 계획요소를 설정하고, 김포한강신도시를 사례로 건설과정과 계획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계획안에 반영해 보고자 하였다. 즉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도시계획간에 환류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2. 개념 및 연구방법

#### 1) 여성친화도시 관련개념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

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 남녀 간 성차별이 없는 기회적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란 앞서 언급한 도시서비스, 시민활동, 편의성 등 도시공간의 조영에서 성형평성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여성이 지닌 고유의 행동특성과 감성조건을 배려한 도시를 말한다.

최근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여성친화도시의 다른 명칭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는 공간적 구조에서 성형평성 개념이 구현된 도시이면서, 공간적 형태에서는 여성의 일상적 행동특성을 배려한 도시다.

신도시의 성별영향평가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 중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안을 대상으로 계획입안의 정책적 여건과 결정과정, 계획내용에 대해 사전평가를 실시, 추진과정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영향저감 내지 해소대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 2) 연구의 방법

먼저 성별영향평가 지표 중 신도시 건설 사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성과 및 제도권 지침 등을 종합 검토하며, 신도시 건설 사업계획서, 사업지침, 실태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음 국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례,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 신도시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지표 및 계획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포한강신도시 계획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신도시계획에 환류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1\_ 연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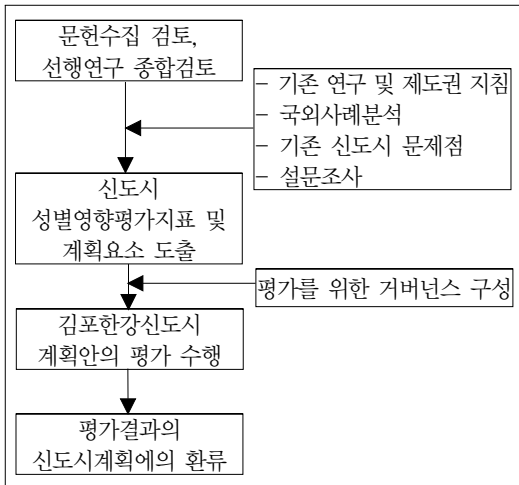


표 1\_ 국외동향

연도	동향
1994	OECD 27개국이 모여 '여성과 도시' 문제 논의
1996	이스탄불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II) 의제 속에 도시와 사회에서 남녀평등성 확보방안 포함
1996	제1차 WACLA(World Assembly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에서 지역차원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Habitat 어젠다 논의
1998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IULA)에서 지방자치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여성선언 채택
2001	뉴욕에서 이스탄불 선언 이후 5년에 대한 평가와 성평등성을 위한 여성단체,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논의

### 3. 국내외 동향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이슈는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1994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여성과 도시(주택, 서비스, 도시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II)에서 Habitat 어젠다 속에 도시와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기간 중 별도로 개최된 제1차 WACLA(World Assembly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에서는 500명의 시장이 모여 지역차원에서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Habitat 어젠다를 논의하였다. 1998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 IULA)에서는 지방자치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여성선언을 채택하였다. 2001년 뉴욕에서는 1996년의 이스탄불 선언 이후 5년에 대한 평가와

성평등성을 위한 여성단체,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를 논의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여성건설인협회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주제로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sup>1)</sup>. 2006년 사업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여성정책과 병행하여 여성을 위한 도시공공인프라 조성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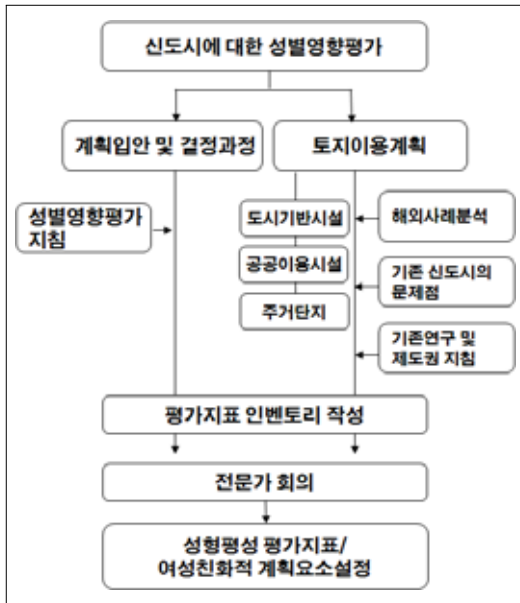
## II. 성별영향평가지표 및 계획요소의 선정

### 1. 지표 및 계획요소 선정과정

신도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크게 정책단계로 계획입안 및 결정과정과 구체적인 도시개발계획단계로서 토지이용계획부문에 나누어 시행할 수 있다. 평가내용은 신도시의 계획입안 및 결정과정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관점에서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의

1) 한국여성건설인협회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그림 2\_ 성별영향평가지표 및 계획요소 선정과정



적절성이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요소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활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요소에 반영하였는지가 주로 해당된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완성된 신도시가 남성과 여성에게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국외사례 분석

### 1) 오스트리아

비엔나시는 1992년 도시확장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여성의 일상과 요구사항을 공동주택 계획단계부터 고려한 공동주택개발사업(Frauen-Werk-Stadt)을 시작하였다. 1995년 9월 착공하여 1997년 359개의 단위세대가 건설되었으며 여성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주택개발에 있어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였다<sup>2)</sup>.

또한 공공적 공간인 공원의 놀이장소에서 여아들의 공간적 선호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Einsiedlerpark와 St.Johann-Park 리모델링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다. 두 공원의 성공에 따라 시정부는 2000년 다른 지역의 22개 공원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sup>3)</sup>.

### 2) 캐나다

1989년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65개의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을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에 대해 재점검하여 일몰 후, 버스 정류장 사이라도 여성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더 가까운 곳에 정차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후 몬트리올에서 여성단체의 요구에 따라 버스정류장 사이라도 여성승객의 목적지에 더 가까운 곳에 정차하는 서비스를 1996년 12월부터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결정하였다<sup>4)</sup>. 이밖에 몬트리올에서는 저녁에 여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 정류장의 주위를 모두 유리로 하여 밖에서도 여성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2) Frauen-Werk-Stadt A Housing Project by and for Women in Vienna, UN-Habitat 홈페이지(<http://www.bestpractices.org/>)[2006.9]

임영현, 2005, “여성 배려하면 사는 게 즐거워져요”. 여성신문사, 1월 28일자.

여성친화도시 선진사례답사자료, 2004.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owsae.or.kr/>).[2006.9].

3) Gender sensitive park design Einsiedlerplatz & St.-Johann-Park, City of Vienna Good Practice .UN-Habitat 홈페이지(<http://www.bestpractices.org/>).[2006.9].

4) 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International Centre for Municipal Development, 2004, *A City Tailored to Women: the Role of Municipal Government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Montreal: FCM, p43.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였다.

벤쿠버는 2006년 세계도시포럼(The World Urban Forum) 개최지로써, 2004년 세계도시포럼이 채택한 “여성이 만드는 도시(A City Tailored to Women: the Role of Municipal Government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라는 매뉴얼에 따라 여성들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여 성형평성 차원의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sup>5)</sup>.

온타리오주 마크함(Markham)의 코넬지역과 시톤(Seaton)의 신도시는 여성단체와 건강도시단체(Health Cities Movement)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여, 새로운 도시계획목표와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sup>6)</sup>

### 3) 영국

영국은 여성건축가와 여성도시계획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WDS(Women's Design Service)<sup>7)</sup>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런던, 브리스톨, 맨체스터와 같은 대도시에서 ‘여성친화적 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가로공간과 공원 등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한 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sup>8)</sup>

런던의 헤링지(Haringey)에서는 ‘Open Sesame Project’를 실시하여 각종 여성사회단체들은 모든 단계에서 정책 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

하여 계획가들과 상점주들에게 여성들이 쇼핑센터까지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식시키고, 접근성 및 상점의 시설을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였을 때, 별을 1개에서 3개까지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sup>9)</sup>

### 4) 독일

뉴른베르그(Nuernberg) 도시의 주택조합은 여성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설할 것을 확정하고, 1996년 독일 내 여성건축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축현상설계를 주최하여 설계안을 확정하였다<sup>10)</sup>.

브레머 베긴넨 호프(Bremer Beginen Hof)는 미혼모와 모자가정, 독거여성노인 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실험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였다. 1층은 물리치료실, 조산소, 커피숍, 상점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물로 조성하였으며 연령층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거단위를 제공하고 중정은 주민들 간의 만남의 장소이자 파티장소로 활용하고 있다<sup>11)</sup>.

### 5) 핀란드

1973년 「아동들을 위한 주간탁아를 위한 법(Child Day Care Act)」을 제정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낮시

5) Making Space for Women in Cities, 2005, The Social Planning and Research Council of BC 홈페이지, (<http://www.sparc.bc.ca>), [2006.9].

6) Allan, Abbie, 1995, “Housing and Planning: Ontario Government Response to Women's Needs”, *Women and Environment* vol 14 No. 2, Women & Environments International Magazine, pp8-120.

7) WDS는 1987년 여성건축가, 디자이너, 도시계획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대런던의회(The Greater London Council)의 지원으로 여성들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 영유아의 기저귀를 갈기 위한 공간, 주택디자인, 포장, 공원, 교통시스템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계획가들과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11.7, 세계도시 동향 130호.

9) Women And Accessibility In Town Centres : Open Sesame Project United Kingdom, UNESCO 홈페이지(<http://www.unesco.org/>), [2006.9].

10) 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04, 여성친화도시 선진사례 답사자료.

11) 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04, 여성친화도시 선진사례 답사자료.

표 2\_ 국외사례 종합분석

국가명	사례	공간조성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여성도시계획가·건축가단체참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Frauen-Werk-Stad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주거단지조성</li> <li>• 공동주택에 여성생활 상을 반영</li> <li>• 유치원, 어린이 주간 보호소가 중요한 위치에 입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도시계획가와 건축가가 설계에 직접 참여</li> </ul>
	비엔나 (Einsiedlerpark, St. Johann-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아들의 공간적 선호유형을 공원 리모델링에 반영</li> <li>• 공원형태와 안전에 대한 문제점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적 기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도시계획가와 건축가가 설계에 직접 참여</li> </ul>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여성친화적 대중교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류장에 투명유리 설치</li> <li>• 위급전화 등의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에 버스 정류장사이 라도 여성승객을 위해 정차하는 서비스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단체의 요구 반영</li> </ul>
	벤쿠버(여성이 만드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도시포럼에서 제 공한 매뉴얼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로 이루어진 태 스크 포스팀 구성</li> </ul>
	온타리오주(여성이 만드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길 가로등 설치</li> <li>• 운동시설 및 산책로 조성</li> <li>• 맞벌이 부부를 위한 편의시설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단체가 설계에 직접참여</li> </ul>
영국	런던, 브리스톨, 맨체스터(여성친화적 거리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을 위한 가로등 개선</li> <li>• 여성감성을 중요시 하는 색채 및 디자인</li> <li>• 화장실 등 시설물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의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DS (Women's Design Service)와 지방자 치단체가 협력하여 시행</li> </ul>
	런던 헤링지(Open Sesame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시설물을 양성 평등적으로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 평등적 상점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단체들이 상점을 직접 평가</li> </ul>
독일	뉴른베르크 (Nuernbe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를 위한 중정을 활용</li> <li>• 부엌, 식당 등이 핵심적인 요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건축가들만 참여 할 수 있는 현상설계 공모</li> </ul>
	브레머 베기넨 호프 (Bremer Beginenh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 독신여성 등을 위한 실험적 주거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치료실 등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중심의 주택조합 결성</li> </ul>
핀란드	데이케어센터 (Day Care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편리한 위치에 데이케어센터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차원에서 탁아 프로그램 운영</li> </ul>	-
노르웨이	코뮤네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 교통계획 등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간호,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등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정비계획의 수립 과 시행과정에 여성을 참여</li> </ul>

간 동안 원하는 가족에게 모두 양질의 탁아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살 이상의 아이를 둔 모든 부모는 집에서 보육을 하는 대신 비용을 수령하거나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 내에 편리한 위치에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아이들이 자전거로 혹은

도보로 데이케어센터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 노르웨이<sup>12)</sup>

노르웨이의 코뮤네 프로젝트는 1989년부터 1992

년까지 코뮤네(노르웨이 군규모의 행정단위)의 마을 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여성을 참여시켜서 여성의 의견과 시각을 반영하는 지역발전계획이다.

노르웨이 전역에서 6개의 코뮤네가 시범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입장과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입안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거나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 3. 여성친화 측면에서 기존 신도시 조사분석

성형평성 관점에서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6일~8일에 목동신시가지와 분당신도시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기반시설로서 교통부문에서는 버스 정류장의 야간에 어두운 조명이 문제가 되었으며, 보도의 훼손이나 단차가 심한 상태로 인한 보행 불편, 공공시설에

여성을 고려한 주차공간의 부족, 경사가 급한 육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공공이용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여성용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 모자(母子)를 위한 공간의 부족, 꽃길 등 걷고 싶은 거리 부족, 골목길의 방법 취약, 공공이용시설에 여성 및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휴식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주거단지의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자동집하장의 미비, 획일적인 건축물 입면적, 무질서한 간판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 4. 기존 신도시 주민설문조사분석

기존 신도시의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목동과 분당의 20대 이상 여성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15일~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도시기반시설(대중교통, 승용차, 보행로, 공원, 산업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도시안전, 주거

그림 3\_ 기존 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그림 4\_ 기존 신도시 주거단지의 문제점



12) 김엘림 외. 2001.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표 3\_ 대중교통을 이용시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목동	분당	전체
야간에 버스승강장이 너무 어둡다.	19.3	27.3	23.3
학교와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가 부족하다.	15.3	18.0	16.7
버스노선도와 주변지도가 여성들이 보기에 어렵게 되어 있다.	5.3	8.7	7.0
야간에 버스에 올라타기가 어렵다.	11.3	2.7	7.0
버스 승강장에 앉을 곳이 별로 없다.	19.3	14.0	16.7
버스가 정류장에 딱 맞추어 서지 않아 뛰어가서 타야할 때가 많다.	29.3	29.3	29.3
합계	100.0	100.0	100.0

주: 2개의 항목을 고르는 복수응답.

**표 4\_ 보행시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목동	분당	전체
맨홀뚜껑, 지하철 환기구, 보도포장상태 불량으로 하이힐을 신었을 때 불편하다.	28.7	26.7	27.7
보도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 걸을 때나 유모차를 끌고 갈 때 불편하다.	14.0	14.7	14.3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자동차가 같이 지나다녀 위험하다.	17.3	14.0	15.7
횡단보도 신호등이 너무 짧아 건너가기가 힘들다.	10.0	6.0	8.0
치마를 입고 육교를 올라갈 때 신경이 쓰인다.	14.0	18.0	16.0
야간에 지하도를 건널 때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16.0	20.7	18.3
합계	100.0	100.0	100.0

주: 2개의 항목을 고르는 복수응답.

**표 5\_ 공원 이용시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목동	분당	전체
공원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야간에 위협을 느낀다.	26.0	28.0	27.0
공원 안에 여성들이 모여서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8.7	12.0	10.3
공원 안에서 아기들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20.7	20.0	20.3
공원 안에 여성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16.7	16.7	16.7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휴식시설, 운동시설이 부족하다.	28.0	23.3	25.7
합계	100.0	100.0	100.0

주: 2개의 항목을 고르는 복수응답.

**표 6\_ 여성들을 위해 부족한 공공시설**

(단위: %)

구분	목동	분당	전체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을 해 주는 시설이 부족하다.	34.7	16.7	20.7
아이들을 맡아 줄 육아보육시설이 부족하다.	30.0	31.3	30.7
여성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부족하다.	20.0	19.3	19.6
여성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모아 파는 거리가 부족하다.	2.7	3.3	3.0
여성들이 동호회나 단체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6.7	13.3	10.0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다.	16.0	16.0	16.0
합계	100.0	100.0	100.0

주: 2개의 항목을 고르는 복수응답.

표 7\_ 야간의 귀가길 안전여부

(단위: %)

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	합계
합계	30.0	53.3	16.7	-	-	100.0
목동	26.7	58.7	14.7	-	-	100.0
분당	33.3	48.0	15.7	-	-	100.0

단지에 있어서 성형평성에 관한 문제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1개 항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SPSS for Windows Rel. 12.0)를 통해 분석하였다<sup>13)</sup>.

1) 도시기반시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느끼는 것으로는 ‘버스가 정류장에 딱 맞추어 서지 않아 뛰어가서 타야할 때가 많다’라는 대답이 29.3%로 가장 많았다. 보행 시 여성으로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맨홀뚜껑, 지하철 환기구가 있거나, 보도 포장상태가 나빠 일상적인 보행에 불편하다’라는 대답이 27.7%로 가장 많았다. 승용차 운전 시 여성으로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여성으로서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고려한 도로표지판이 부족하다’라는 대답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이용 시 여성으로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설에 대해서 ‘공원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야간에 위험을 느낀다’라는 대답이 27.0%로 가장 많았다. 신도시에서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설에 대해서 ‘회사 인근에 탁아시설이 없다’라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 중 40.0%로 가장 많아 탁아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공공이용시설

신도시에서 여성들을 위해 가장 부족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을 맡아 줄 육아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 중 30.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신도시 내에서 여성으로서 또는 귀가하는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비율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구도심보다 안전하다고 인식되었던 신도시 내에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야간 안전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쇼핑센터에 갈 때 여성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다른 일을 보기 위하여 쇼핑한 물건을 맡길 곳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2.0%로 가장 많았다.

3) 주거단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여성을 고려한 운동시설, 미용시설이 단지 내에 부족하다’라는 대답이 20.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재활용품을 사고팔거나 환경에 좋은 물건을 사고파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21.7%로 가장 많았다.

13)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전체 비율의 4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결혼한 여성은 전체 비율의 68.0%로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직장인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가 38.0%, 학생이 10%, 자영업이 8.7%의 순임.

**5. 성별영향평가지표 및 계획요소의 선정결과**

1) 계획 입안 및 결정과정

신도시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은 성별영향평가지침 중 신도시개발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는 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 ②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③ 정책결정과 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이 해당한다. 이들 항목의 점검 포인트에 따라 신도시 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2) 토지이용계획

앞서 분석된 해외사례,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 주민설문조사 등에서 나온 요소들을 중심으로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2회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거쳐 토지이용계획 부문의 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와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요소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김포한강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주로 성형평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요소가 반영된다.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도시기반시설(교통, 공원·녹지, 산업), 공공이용시설(교육, 문화, 사회·복지, 공공청사), 주거단지(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부문별로 성형

**표 8** 신도시 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 대한 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신도시 관련 법령 및 계획지침	택지개발관련 법령 및 개발지침의 성인지적 특성 반영
계획 입안	사업계획서 인적 통계의 성별분리
	사업계획 내용 중 여성에 대한 별도의 항목 배치
	계획입안자들의 양성평등 구현정책 인지
	여성관련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반영
결정 과정	자문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성별위원 비율
	사업홍보방식의 양성평등 구현

**표 9**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및 여성친화적 계획요소

구분	항목	성형평성 평가지표	여성친화적 계획요소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여성을 배려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교통승강장, 교통환승장에 밝은 조명 설치		○
		계단과 램프의 동시 설치		○
		높낮이 없는 도로환경 조성		○
		보행과 차도의 분리(보행자 안전고려)	○	
		여성을 배려한 주차공간 확보(환승·공공주차장)	○	
		교통 정온화 계획	○	
		단거리 교통시스템 도입(학교-쇼핑센터-공공시설-주거)		○
		Barrier Free 개념에 입각한 보행로 조성		○
		초등학교와의 보행안전 확보		○
		교통 및 지역안내체계 구축		○
		야간 지하도 통행 시 위험 해소(밝은 조명 등)		○
		여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 포장(구두 굽 고려)		○
		여성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신호체계 확립		○

표 9\_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및 여성친화적 계획요소(계속)

구분	항목	성형평성 평가지표	여성친화적 계획요소
도시 기반 시설	공원 · 녹지	범죄의 우려가 없는 밝은 분위기의 공원 연출	○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	○
		공원 내 여성배려 체육공간 조성(미용, 에어로빅)	○
		공원 내 여성친화센터 조성	○
		공원 내 여성배려공간 마련(수유실, 기저귀갈이)	○
		도시 내 사각지대의 공원화(범죄예방)	○
		꽃길 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산업	도시 자족시설 내 탁아시설 설치(Day Care 센터)	○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	○
		여성고용기업 유치 프로그램	○
공공 이용 시설	교육	여성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배치	○
		감성환경을 중시한 열린학교 조성	○
		어린이 공원 및 체험공간 조성(어린이 숲 학교)	○
	문화	통학거리 및 여성 생활 동선을 고려한 학교 및 유치원 등의 배치	○
		여성 중심의 문화센터 설치	○
		여성 특화 상업가로 조성	○
		여성친화 문화의 거리 조성	○
		여성 중심의 체육시설 설치(공원 및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	○
		여성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사회 · 복지	지감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박물관 조성	○
		육아 보육시설(Day Care Center) 배치	○
		공공시설 내 여성을 고려한 휴게소 설치	○
	공공 청사	여성용 화장실 규모 확대	○
		여성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
		방법취약지역의 CCTV 설치	○
편리한 공공청사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	
주거 단지	단지 조성	여성, 노약자,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
		여성 화장 기능을 고려한 화장실 설치	○
		미끄러지지 않는 건물 내 바닥 마감	○
		주거지 인근 유흥시설 입지제한	○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	○
		단지경관 스카이라인 계획	○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며 재미있는 건축물 및 건축입면 계획	○
	주택 내부	도시경관을 고려한 조명 및 간판 디자인 계획	○
		구조물, 건축물 통합이미지 디자인	○
		여성의 편의를 고려한 단지의 동선계획 및 단지배치	○
		맞춤형 주방시스템(에어 커튼 포함)	○
		자동 청소 집진 시스템 도입	○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기술 도입	○
공동 체 프로 그램	공동 탁아 프로그램(주민과의 연계)	○	
	여성·어린이·노약자 교통사고 예방교육프로그램	○	
	녹색가게 등 다양한 여성활동 프로그램	○	
	도농 연계 프로그램(친환경 농산물, 농촌체험)	○	

평성과 관련된 평가지표와 여성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 III.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김포한강신도시는 생태환경과 문화교류를 콘셉트로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일원 1,084만 m<sup>2</sup>를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세대 5만 2,812세대,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8월 330만 m<sup>2</sup>면적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세 차례의 지정변경을 통하여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12월 개발계획 승인, 2007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

#### 1. 계획입안 및 결정과정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사업의 계획입안 및 결정과정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로는 신도시 관련 법령

및 계획지침 속에는 주로 교통에 대한 기준이 많으며, 산업, 문화,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는 김포한강신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신도시계획과정에 해당한다.

계획입안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인적 통계 성별분리’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도시 개발계획서상에는 인적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계획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사업계획 내용 중 여성에 대한 별도의 항목 배치’에 관한 것도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획입안자들의 양성평등 구현정책 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이전에는 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련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반영’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여성개인들의 요구사항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_ 김포한강신도시 계획입안 및 결정과정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구분	평가요소	평가
신도시 관련 법령 및 계획지침	택지개발관련 법령 및 개발지침의 성인지적 특성 반영	• 주로 교통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적용된 편이며 산업, 문화,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의 항목들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음
계획입안	사업계획서 인적 통계의 성별 분리	• 인적통계의 성별분리 미적용
	사업계획 내용 중 여성에 대한 별도의 항목 배치	• 별도의 항목은 배치하지 않음
	계획입안자들의 양성평등 구현 정책 인지	• 최근 여성친화에 대한 연구진행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음
	여성관련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반영	• 주민설명회를 통해 여성들의 개인적인 요구사항만을 제시함
결정과정	자문, 심의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성별위원 비율(여성위원 비율 최소 30% 이상)	• 신도시 개발계획에 총 20명의 연구진 중 여성은 2명이 참여 (개발계획: 1명,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1명) • 국토해양부 신도시자문위원회 20명 중 여성 4명 참여(20%) •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14명 중 여성 2명 참여(15%) • 김포한강신도시 총괄계획가 4명 중 여성 참여 없음(0%)
	사업홍보방식의 양성평등 구현	• 최근 여성친화에 대한 연구진행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음

‘자문, 심의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성별위원비율’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전체 참여연구진 20명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2명)로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분야에서 참여하였다. 또한 계획결정과정에서 자문, 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은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20명 중 여성 4명 참여(20%),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14명 중 여성 2명이 참여(15%)하고 있고, 김포한강신도시 총괄계획가 4명 중 여성 참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 과정에서 여성위원비율 최소 30%를 충

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홍보방식의 양성평등 구현’은 계획입안과정 중 ‘계획입안자들의 양성평등 구현정책 인지’와 마찬가지로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시점에는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기반이

표 11 \_ 반영된 도시기반시설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

구 분	지표	김포한강신도시 건설 사업계획서상의 내용
교통	보행과 차도의 분리 (보행자 안전고려)	• 생태환경지구의 생태마을 및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교류지구 내 수변상업 공간, 행정복합지구의 단독주택용지 내 집산도로를 보차공존도로로 계획하여 자동차 속도를 억제하고, 다양한 가로시설물을 배치함으로써 보행의 안전과 쾌적성을 보장
	여성고려 주차공간 확보 (환승·공공주차장)	• 노외주차장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주차수요가 많은 곳과 단독주택용지 블록 내에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상가 및 보행축과 연계 배치하도록 하여 이용 편리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교통정온화 계획	• 보차공존도로로 계획하여 차도의 굴곡이나 굴절에 의해 자동차 속도를 억제하고, 다양한 가로시설물을 배치함으로써 보행의 안전과 쾌적성을 보장 • 도시전체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여 공원·문화시설·학교 등을 차량의 흐름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동선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를 통과할 시 보행우선의 입체처리를 유도하도록 함
	초등학교와의 보행안전 확보	• 도시 전체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여 공원·문화시설·학교 등을 차량의 흐름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공원·녹지	그린웨이 조성	• 도시민의 숨길로서 하천 및 수로변을 중심으로 건강가로를 조성(커뮤니티회랑 조성)하여 면적인 공원녹지를 선적으로 연계하는 보행자·자전거도로망 계획 수립
	공원 내 여성고려 체육공간 조성(미용, 에어로빅)	• 체육공원 내 생활스포츠 시설, 생활권별 사회스포츠시설 도입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문화예술의 창작·전시·공연 등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
산업	도시 자족시설 내 탁아시설 설치	• 지구별로 청소년·여성·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을 총 6개소 계획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 건강·미용관련연구소 및 전시관·게스트하우스 유치
	여성고용기업 유치 프로그램	• 건강·의료관련 벤처업무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유치

되는 교통, 공원·녹지, 산업시설 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부문이다. 김포한강신도시 건설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교통, 공원·녹지, 산업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신도시계획에의 환류

앞에서 연구한 성별영향평가 요소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계획에 여성친화적 계획요소를 반영한 계획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전체를 걸을 수 있는 보행로망을 계획한다.
- ② 여성을 고려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③ 공원 내 여성전용체육시설을 조성한다.
  - 산책로 조성 시 여성을 고려한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 벤치 조성 시 여성 및 아이를 고려한 설계를 실시한다.
  - 화장실 조성 시 기저귀갈이대 및 수유실을 설치한다.
  - 아동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 체육공간 조성 시 남성위주보다는 가족 또는 여성을 고려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 보행로 및 이용공간에 대한 밝은 조명 CCTV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친수환경 및 꽃길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공간을 창출한다.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피크닉파크를 조성한다.
- ④ 여성복지문화센터를 설치한다.
- ⑤ 생활권별 청소년, 아동, 여성, 노인복지시설 총 6개소를 확보한다.

- ⑥ 생활권별로 탁아시설(Day Care Center)을 설치한다.
- ⑦ 여성창업보육 및 여성고용기업 유치계획을 수립한다.

표 12\_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항목 반영여부

구분	항목	반영	미반영
교통	여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교통승강장, 교통환승장에 밝은 조명 설치		○
	계단과 램프의 동시 설치		○
	높낮이 없는 도로환경 조성		○
	보행과 차도의 분리 (보행자 안전고려)	○	
	여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 (환승·공공주차장)	○	
	교통 정온화 계획	○	
	단거리교통시스템 도입(학교-쇼핑센터-공공시설-주거)		○
	Barrier Free 개념에 입각한 보행로 조성		○
	초등학교와의 보행안전 확보	○	
	교통 및 지역안내체계 구축		○
	야간 지하도 통행 시 위험 해소(밝은 조명 등)		○
	여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 포장		○
공원·녹지	여성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 보도 신호체계 확립		○
	범죄의 우려가 없는 밝은 분위기의 공원 연출		○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	○	
	공원 내 여성고려 체육공간 조성(미용, 에어로빅)	○	
	공원 내 양성평등센터 조성		○
	공원 내 여성고려 공간 마련(수유실, 기저귀갈이)		○
	도시 내 사각지대의 공원화(범죄예방)		○
산업	꽃길 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도시 자족시설 내 탁아시설 설치(Day Care 센터)	○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	○	
	여성고용기업 유치 프로그램	○	

#### IV. 결론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는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역사 속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도시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직접 도시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성형평성을 고려한 도시의 안전확보,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편의성 제고 등이 향후 신도시 건설의 주요 과제다. 기본적으로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감성을 반영한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채광, 녹지확보 등 쾌적성 증대로 도시공간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법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상위 법규인 「도시개발법」,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의 조문·시행령·시행규칙에 성인지적 도시계획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아직까지 성인지적 관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계획입안과정의 사업계획 내용 중 인적통계에서 성별을 분리하여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 (2) 각종 계획지침 속에 성형평적 도시계획요소를 반영

건설교통부(2005),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지침」이나 한국토지공사(2000), 「환경친화적 택지개발편람」 등에 본고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성형평적 도시계획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침은 개발되었으나 성형평성 관점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보면 대중교통서비스, 보행자 안전고려, 주차공간 확보, 녹지네트워크, 유치원·학교·보육시설의 배치 등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이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계획지침이나 편람 속에 성형평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향후 개발될 다양한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 (2) 신도시개발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등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각종 홍보책자를 작성·배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적 관점, 성형평성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다른 부처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건축가를 비롯하여 도시계획가, 엔지니어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확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2005.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건설교통부 행정규칙. 경기 : 건설교통부.
- 김엘림 외. 2001.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박용남. 2006.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자발적 노력. 서울 : 제이플러스에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세계도시 동향 130호.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11.7].
- 성경림. 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서울 : 제이플러스에드.
- 임상요. 2006. "창조형 경제시대의 도래와 창조도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서울 : 제이플러스에드.
- 임영현. 2005. "여성 배려하면 사는 게 즐거워져요". 여성신문사. [2005.1.28].
- 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06.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건설: 도시와 공동주거관점에서".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세미나 자료. 서울여성플라자.
- \_\_\_\_\_. 2004. 여성친화도시 선진사례답사자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owsae.or.kr/>)[2006.9].
- 한국토지공사. 2000. 환경친화적 택지개발편람. 성남: 한국토지공사
- Allan, Abbie. 1995. "Housing and Planning: Ontario Government Response to Women's Needs". *Women and Environment* vol.14, No.2. Women & Environments International Magazine
- 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International Centre for Municipal Development. 2004. *A City Tailored to Women: the Role of Municipal Government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Montreal : FCM, p43
- Frauen-Werk-Stadt A Housing Project by and for Women in Vienna. UN-Habitat 홈페이지(<http://www.bestpractices.org/>)[2006.9].
- Gender sensitive park design Einsiedlerplatz & St.-Johann-Park, City of Vienna Good Practice . UN-Habitat 홈페이지(<http://www.bestpractices.org/>)[2006.9].
- Hill, R. 1996. "Women and Transport". Eds. C. Booth, J Darke & S. Yeandle. *Changing Places: Women's Lives in the City*. London : Paul Chapman.
- Hudson, Christine. 2006. "The Gender Equal Region- A new Image for an old region?". *Towards a New Nordic Regionalism Conference Balestrand*, Norway.
- Making Space for Women in Cities. The Social Planning and Research Council of BC 홈페이지(<http://www.sparc.bc.ca/>).[2006.9]
- OcT and Tiesdell, S. 1997. *Safer City Centres: Reviving the Public Realm*. London : Paul Chapman.
- Women And Accessibility In Town Centres : Open Sesame Project United Kingdom. UNESCO 홈페이지(<http://www.unesco.org/>).[2006.9].
- WDS History. WDS 홈페이지([www.wds.org.uk](http://www.wds.org.uk/)).[2006.9]

- 논문 접수일: 2008. 7.30
- 심사 시작일: 2008. 8. 7
- 심사 완료일: 2009. 3.19

**ABSTRACT**

**A Case Study on Women-friendly Kimpo New Town Planning with Gender Equity Assessment**

Keywords: Woman-friendly City, New Town, Gender-Equity Impact Assessment

The modern city has pursued the high efficiency and convenience with well-equipped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a men-oriented perspective. However this city has also produced a problem to women such as an access barrier to public space as well as a behavioral difficulty in outdoor activities. The New Town Development Project(NTDP) is a good experimental chance to achieve the women-friendly city. Therefore, new town builders should accept the Gender-Equity Impact Assessment(GEIA), and also feedback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to planning and construction process.

Proposal to Policy Improvement is as follows:

- ①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gender-consciousness concept to urban planning system.
- ② The GEIA is needed to Public-led NTDP with over a definite area.
- ③ It is necessary that gender-consciousness concept is introduced to planning process for urban space construction.
- ④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various kinds of education programs available to NTDP related public servants and planning engineers.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주제어: 여성친화도시, 신도시, 성별영향평가

현대도시는 외형적 발전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의 경우 각종 편의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존재한다. 신도시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외사례 및 기존도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평가지표 인벤토리를 만들고 최종 성별영향평가지표와 계획요소를 설정하였다. 특히 여성친화적 계획요소로는 공원재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공간, 육아 및 보육시설, 여성일자 리창출 기회 등이 꼭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포한강신도시를 사례로 건설과 정과 계획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계획안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야 하고, 둘째, 각종 계획지침 속에 성형평적 도시계획요소를 반영하며, 셋째, 신도시개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